

KIA 윤석민, 부활 발판 마련할까

지난해 어깨 수술로 시즌 통째로 재화로 보내
2년만에 스프링캠프...4년 계약 마지막 시즌

프로야구 KIA가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담금질에 나선 호랑이 군단 명단을 확정했다. KIA는 22일 "오는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3월 8일까지 오키나와 긴 구장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에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5명, 선수 40명 등 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투수 조는 양현종, 임창용, 핵터 노에서, 팻 딘, 윤석민 등 19명이며, 포수 조는 김민식, 백용환, 한승택, 한준수 4명이다. 김주찬, 이범호, 김선빈, 안치홍, 정성훈, 최원준 등 내야수 11명과 최영우, 나지완, 버나디나 등 외야수 6명도 포함됐다. 신인은 1차 지명 한준수가 유일하다. 특히 우완 윤석민 이름이 눈에 띈다. 윤석민은 지난해 어깨 수술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은 온전히 재활로 보냈다. 팀은 통합 우승을 이뤘지만 윤석민의 존재감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 시즌 윤석민이 2년 만에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것이다. 메이저리그(MLB) 도전에 실패했던 윤석민은 2015시즌 전 4년 90억 원에 친정팀에 합류했다. 그해 51경기 2승6패 30세이브

평균자책점(ERA) 2.96으로 나름 활약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부상으로 16경기 2승2패 1세이브 6홀드 ERA 3.19에 머물렀다. 올해는 4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다. 부활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윤석민에게는 절실한 올 시즌이다. 그런 점에서 한해 농사를 좌우할 스프링캠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캠프에서 절치부심할 윤석민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LG에서 방출돼 극적으로 고향 팀에 복귀한 내야수 정성훈도 캠프가 남다르다. 사실상 지난해 7억 원 몸값에서 6억 원이 삭감된 금액에 사소한 정성훈이다. 돈보다 야구를 하고 싶었기에 낮은 연봉을 감당하고 부활을 노린다. KIA는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한다. 2월 중순부터 한국 및 일본 팀들과 12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도 끌어올린다. 일본 프로야구 팀과는 다음 달 14일 긴 구장에서 라쿠텐을 시작으로 8차례의 평가전이 열린다. 국내 팀들과도 3월 1일 한화 등 4차례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베트남서 '박항서 난리'...2002년 한국 히딩크 열풍급

축구 변방국 볼구 AFC U-23세 이하 챔피언십 4강행



베트남에서 '박항서 난리'가 났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72) 감독에게 열광한 우리나라와 같다. 박항서(59)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20일(한국시간) 중국 장쑤 스

포츠센터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8강전에서 이라크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5-3으로 승리했다. 축구 변방 동남아시아 나라가 이

대회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베트남 전역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베트남 국민들이 붉은 물결을 이뤘다. 국제축구연맹(FIFA) 112위인 약체 베트남 축구의 신전이 베트남 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대단하다. 박 감독을 놓고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코치로 이끌었지만 감독으로서는 이렇다 할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던 현지 언론도 박 감독을 향해 돌아섰다. 앞 다퉈 박 감독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교체 선수의 동점골과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 등을 칭찬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97세 어머니와 부인을 한국에 두고 베트남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 박 감독이 홀로 라커룸에 남아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인다. '베트남 히딩크' 수준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사령탑을 맡았다 3개월 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친 것이다. 1988년 은퇴한 박 감독은 1996년까지 LG 치타스에서 코치로 있다가 1997년 수원 삼성으로 옮겼다. 2000년 11월 국가대표팀 수석코치가 된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며 4강 신화를 도왔다. 푸근한 외모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가교 노릇을 훌륭히 해냈다. 이후 포항스틸러스, 경남 FC,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창원시청 등에서 지도자 길을 걸었다. 거센 항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비판도 들었지만 특유의 소신을 좋아하는 팬들도 적잖았다. 베트남은 23일 카타르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한국이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으면 박 감독과 한국의 결승 대결이 성사된다. 박 감독은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것을 즐기고 싶다. 기적이 계속되든, 아니든 기다려보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 얻으려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남긴 명언 "나는 아직 배고프다"가 떠오른다. 뉴스스

"강정호, 도미니카 우회 미국 비자 시도...발급 못 받을 듯"

美 CBS스포츠 "발급 거부시 복귀 공식적 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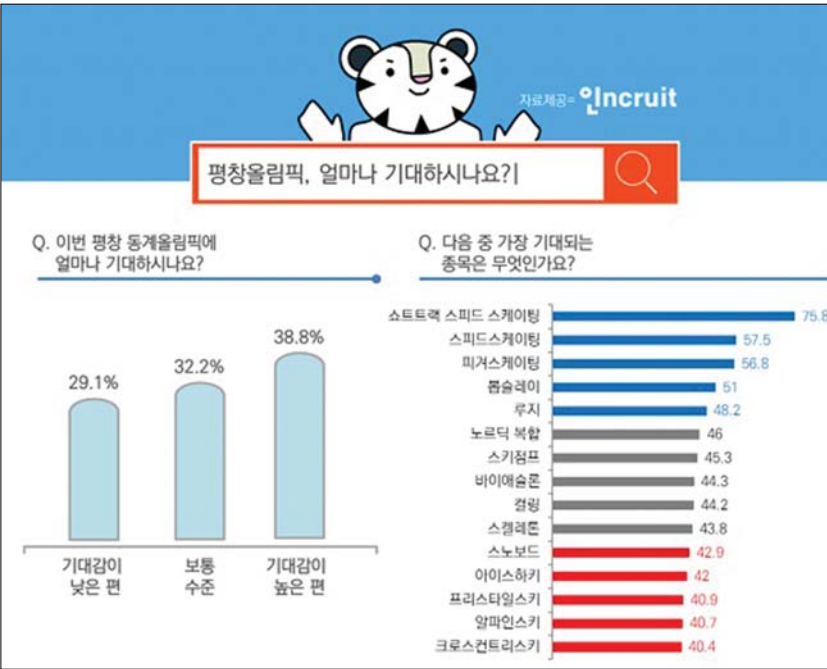
미국 현지 언론이 취업 비자 발급을 시도 중인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호크)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CBS스포츠는 22일(한국시간) "강정호가 여전히 메이저리그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정호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미국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정호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한 것은 메이저리그로 복귀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며 "민약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면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 희망은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진출한 강정호는 데뷔 첫 해 126경기에 출전,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60득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그해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에서도 3위에 올랐다. 2015년 시즌 막판 무릎 부상을 당한 강정호는 2016년 부상 여파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경기에서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 45득점을 기록하면서 피츠버그 주전 3루수 자리를 굳게 지켰다. 하지만 강정호는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부당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강정호는 2017시즌을 통째로 남겼다.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가던 강정호는 실전 감각 조율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떠났으나 부진 끝에 방출당했다. 여전히 강정호는 미국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피츠버그로 복귀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지 전망도 부정적이다. CBS 스포츠



포츠는 "강정호가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복귀 시도도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도 강정호의 비자 발급 가능성을 낮게 점했다. "강정호가 다른 대사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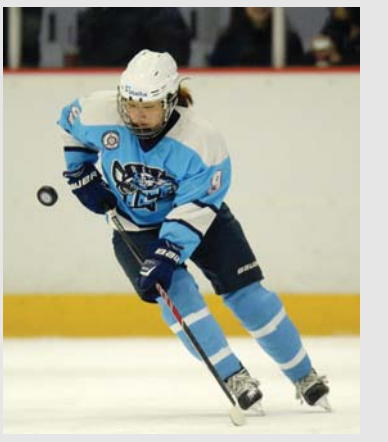
국민 38% "평창올림픽 기대" "직접 찾아가 관람" 불과 7%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이 뽑혔다. 22일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3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가 38.8%, '없다'는 29.1%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32.2%였다. 평창올림픽 관람은 'TV로 즐기겠다'(5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및 모바일로 동영상 볼 것'(25%), '직접 찾아가 관람할 것'(7%)로 등의 순이었다. 뉴스스

직접 관람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티켓 값'(100점 환산점수 중 71.5점)이 1위에 올랐다.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69.9점), '비싼 숙박비'(62점), '불편한 교통'(53.9점), '신체적·체력적 한계'(48.4점) 등의 의견도 있었다. 총 15개 종목 중 쇼트트랙(100점 환산점수 중 75.8점)과 스피드 스케이팅(57.5점)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 국가순위 1위는 미국(22%)이, 우리나라는 7위로 전망됐다.

"단일팀? 불가능하고 말 안되는데..."

여자아이스하키 이민지



"선수에게 경기를 뛰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몇 번이라도 희생하는게 어떻게 기회 박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이민지(26)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결성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선수들도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이 담긴 뉴스 화면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1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탈락한 이민지는 "어찌까지 올림픽이라는 이름표를 함께 꾸며 팔뚝려왔던 선수로서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딱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바뀌지 않을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수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 있다고.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제가 목소리를 내볼까 한다"고 전했다. 이민지는 "올림픽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지 솔직히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나의, 우리의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목표를 위해 할 일에 집중하고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일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처음 단일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기정 사실화된 이 상황이 당연히 믿기지 않는다. 아직까지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민지는 "선수에게 경기를 뛰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단 몇 분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기회 박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며 "심지어 아예 벤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이 상황을 기본종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뉴스스

김진욱 kt 감독 "6회부터 눈빛 달라져야"

"올 시즌 5할 승률이 목표입니다. 근성 없는 선수는 1군 무대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kt 위즈 김진욱 감독은 22일 수원 월드컵장에서 열린 kt 위즈 2018년 선수단 신년 결의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3년 연속 리그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떨치려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김진욱 감독은 이날 "세 가지만 전해주고 싶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발언을 열었다. "올해 팀의 목표는 시즌 끝날 때까지 5할 승률이다. 지난해에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18년 kt의 목표는 5할 승

률이다. 감독이 생각하는 팀의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끊임이달라"고 주문했다. "어떤 상황이고 핑계를 대거나 탓하지 말자. 그렇다면 보상이나 위로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본인 위치를 스스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지 않는 선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클리어 타임이 끝난 6회부터 모두가 눈빛 달라져야 한다. 점수와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약점이 보이고 늘어난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런 눈빛이 없다면 1군에 있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